

인성교육과 도덕적 권위

손봉호 (대표주관)

박 대통령이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연한 강
조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이
지식교육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의 인성교육실태
조사에 의하면 교사, 학생, 부모의 54-80%가 학생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도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초등학교에서는 국
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여 지필고사 위주의 평
가 제도를 수정하며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
여 선행학습을 금지할 것이라 한다. 교육관련 213개 단
체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구성해서 '우수 인성
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나섰고 충북 교육청은 인성교육
활성화 계획을 잘 세운 160개 학교에 100만 원씩을 지
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잘못된 제도와 프로그램의 결여가 문제
인가?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생과 학부모 대
부분은 '성적위주의 학교교육'을 인성교육 위기의 원인
으로 꼽았고 교사들의 45.6%는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
이 문제라 했다 한다. '성적위주의 학교교육'도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이 반영된 것이므로 교사들의 진단이 더
정확하다.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초점은 모두 대
학 입시에 모여 있고, 시험성적이 대학의 입시경쟁을 좌
우하기 때문에 그 교육이 성적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좋은 대학에 입
학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되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좋은 대학 입학이 시험성적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몇 가지 제도를
바꾸거나 좋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하여 해
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모든 나라의 모든 부모들과 학생들은 다 좋은 대
학에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따라서 좋은 대학 입학은 경
쟁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만 인성교육
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은 우
리에게 독특한 세계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인의 세계관은 철저히 차세중심적이다. 초월 신
에 관심이 없고 내세의 인과보응을 믿지 않는다. 삶의
모든 의미는 이 세상에서 있고 이 세상에서의 입신양명
(立身揚名)이 최고의 가치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유명해지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심이 강한 이
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제도 등의 전통 때문에 좋
은 교육을 받는 것이 입신양명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
로 정착되어 있다. 그 때문에 한국인은 다른 어느 나라



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려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 한다. 한국에서 대학은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라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훌륭한 인품이 대학 입학의 중요한 조건으로 인정된다면 인성교육은 저절로 이뤄질 것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참여정부는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도 이를 계승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성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자의 도덕적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판정기준이 되기가 어렵다. 지금 내신을 책임진 교사들과 입시사정관들은 낙제한 학생들이 제기할 수 있는 비판과 이의가 두려워서 객관적이 될 수 없는 인성을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객관적' 기준이 만들어지자마자 입시학원들은 즉시 이를 위한 사교육을 시도할 것이고 인성교육은 또 다시 지식교육으로 변질될 것이다. 교육자들의 도덕적 권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제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의 높은 경쟁심과 좋은 대학을 향한 종교적 열정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고교내신과 대학의 입학사정의 도덕적 권위는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다. 대학 입시 업무를 맡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공정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조만간 그들의 공정성은 인정받을 수 있고 수험생의 인성은 대학합격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변화에 기독교 학교들과 그리스도인 교육자들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는가?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